

“올 가을 수목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9월 개막 준비 한창 15개국 160여명 작가 전통-현대 조화 선포

전남도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오는 9월 개막하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수목향에 빠져드는 장이 되도록 화려한 전시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이다.

개막 70여일을 앞둔 제3회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 국가 160여명의 유명 작가가 참여해 전통 수목과 현대 수목의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화 전공 대학생과 전국 어린이도 함께 참여해 수목을 즐기는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와 진도 총 6개 주전시장과 광양·순천·해남 3개 특별전시장,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기념전 등을 통해 전남 어디서든 수목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별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수목 작품을 연출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의 행사에서 미디어아트, 조각, 설치미술, 공예, 의류 등 지평의 한계를 벗어난 수목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한층 진일보한 수목 향연이 펼쳐진다.

전시 외에 누구나 수목을 즐기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수목을 입힌 복장과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출해 예술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은 수목 패션쇼와 역동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개막식에서 만날 수 있다. 수목과 동양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수목 콘서트도 마련됐다.

수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기다리고 있다. 수목 재료로 개성있는 일상용품들을 만드는 ‘수목놀이 교실’, 본인의 일상·좌우명 등을 수목으로 표현하는 ‘나도 수목화가’, 족자·화선지·부채·순수건 등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에 나만의 작품을 소장하는 ‘농담 속 수목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수목

작가가 되보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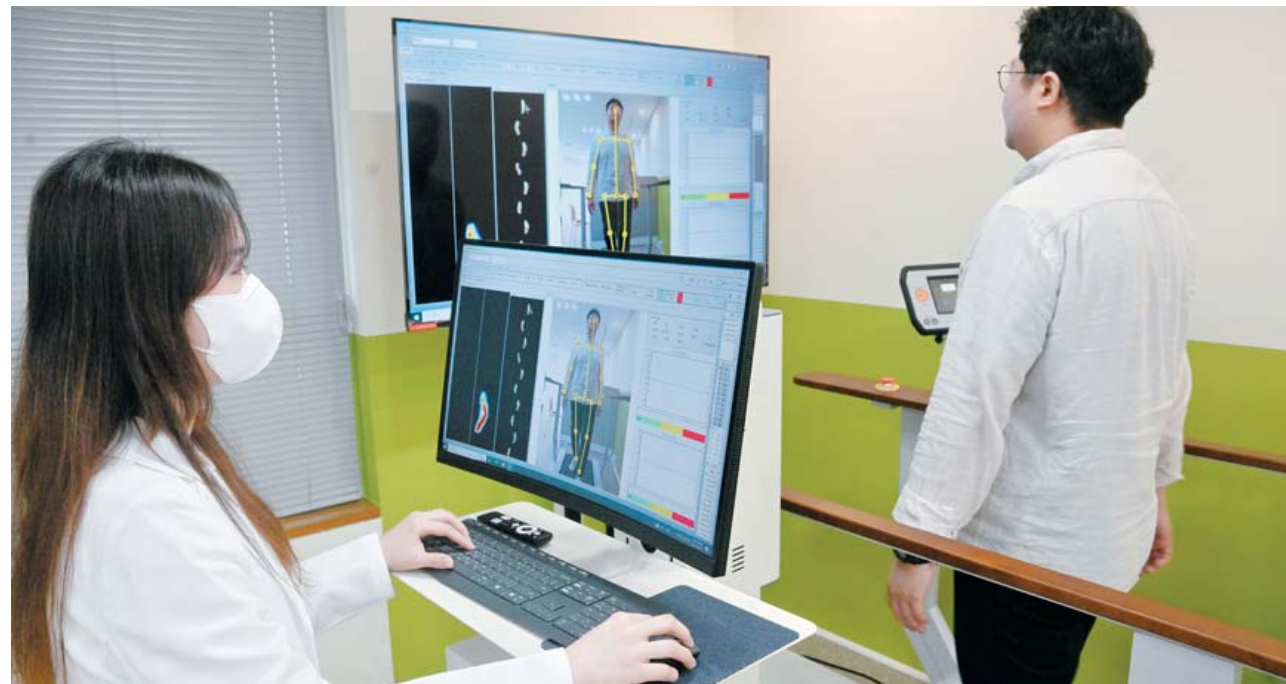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수목을 알릴 수 있도록 최근 가수 송가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홍보대사 이미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수목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판매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수목비엔날레 누리집, 티켓링크,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입장권 사전 예매 시 혜택도 풍성하

다. 성인권은 7천원, 청소년권은 3천원, 어린이권은 2천원으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인 9-10월 수목비엔날레 입장권 하나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진도 운림산방,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예술랜드,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포함한 전남 6개소 유명 관광지와 연계 할인도 진행한다.

이건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올해 수목비엔날레는 모든 연령층이 즐기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올해 가을 수목을 통해 관람객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기자



‘라이프 로그 건강관리소’ 장비 시연

광주 동구는 21일 창업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건강서비스를 위한 시헬스케어사업 ‘라이프 로그(Life Log) 건강관리소’ 관리 장비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 주민이 워킹머신 위에서 본인의 근·골격계를 측정받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産 잡곡류 등 가공식품 20t 美수출

도농기원, 150여개 품목 1억5천만원 성과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지역특화 가공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비축기지에서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네시피에프앤비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한 지역특화 가공식품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수출길에 오른 가공식품은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잡곡류, 떡류, 귀리국수, 도라지배즙, 딸기칩, 미역, 매생이가공품 등 150여개 품목 20t(1억5천만원)이다.

전남산 가공식품 미국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아 향후 지역 주력 수출 가공식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수출 전문업체와 연계해 도내 여성·청년벤처농과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이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농업기술원은 도내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농가 해외마케팅 지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 유학생 판매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업체인 ㈜네시피에프앤비의 장현순 대표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 규모 확대를 위해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전남도 우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해외 매장 necip 1호점을 오픈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수출은 ㈜네시피에프앤비 장현순 대표와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수출에 대한 열정으로 이룬 성과”라며 “우수 가공식품 신규 발굴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광주시, 서부농수산물시장 등 3곳 최대 2만원 환급

광주시는 21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는 물론, 수산업계의 불안감 확산 등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특별전’의 하나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장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3곳이다. /박성강기자

이들 시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당일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받는다.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때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단,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주최회 경제창업실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광주 ‘남도 달밤 야시장’ 내일 문연다

대인예술시장서 11월18일까지 총 15회 진행

광주 ‘남도달밤야시장’이 오는 23일부터 11월18일까지 대인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올해 ‘남도달밤야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개장일인 23일에는 푸드장터, 음악 공연, 스마트관광체험,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푸드장터는 한국식 가와를 덧입힌 푸드마차 등 상인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배치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개장 축하 공연은 DRP(Dream Romance Passion) 응원단, 소리꾼 방수지의 판소리, 달시소의 감미로운 공연, 유의동의 신나는 록, 안수민의 뮤지컬, 2인조 컨트리 밴드인 더 웨임 등 화려한 공연진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을 예

정이다.

또 스마트관광 콘텐츠인 ‘메타버스 증강현실(AR) 아치’와 축제전용 앱(APP)을 활용한 모바일 게이미피케이션도 야시장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아트컬렉션쇼 ‘수작’에서는 작품 전시와 판매, 도예(물레) 체험·핸드페인팅 체험 등이 이뤄지고 상설 전시공간인 한평갤러리도 새로운 시즌을 맞아 작가들의 주제별 작품 전시를 열 계획이다. /박성강기자

예술가와 시장 상인의 커뮤니티 공간인 ‘별별상상정원’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인예술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로 운영된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남도 달밤 야시장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예술을 즐기며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도 달밤 야시장은 ▲시즌1=7월까 지 6회 ▲시즌2=9월 3회 ▲시즌3=10월 4회 ▲시즌4=11월 2회 등 총 4개 시즌 15회에 걸쳐 테마형 야시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강기자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6월 포럼’ 30일 개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6월 에너지전환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021년 출범한 RE100 시민클럽이 ‘RE100 시민클럽’을 주제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RE100 시민클럽 출범 계기와 현황’ ▲김준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이 ‘전주RE100 시민클럽 사례’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정대산 팀장이 ‘광주RE100 시민클럽 현황’을 각각 발제한다. /박성강기자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법최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